

특집: 코로나19 시대의 우리

코로나로 바뀐 세상, 그리고 바뀔 세상

이 홍 균

한국인삼공사 R&D본부

Changes in the World Due to Covid-19, and More Changes Ahead

Hong-Gyun Lee

R&D Headquarters, Korea Ginseng Corporation, Daejeon 34128, Korea

코로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코로나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2020년 설 연휴 즈음만 해도. 그렇게 우리는 다소 바쁘고 들뜬 마음으로 설을 쇠었다. 설 명절이 끝나자마자 뉴스에서는 박쥐, 폐렴, 봉쇄, 바이러스 등의 단어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적인 위화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일전에 메르스와 사스가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코로나는 대수로워져만 갔다. 결국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어 버렸다. 하루하루 늘어나는 확진자 및 사망자 소식과 세계 각국에서 시행된 봉쇄조치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마치 눈을 한 번 깜빡이면 다른 세상이 펼쳐지듯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다른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마치 던져지듯이.

그 누가 이런 세상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왜 하필 내가 사는 시대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까?’라는 생각으로 현시대를 부정하는 사람과 ‘그래도 과학, 의료, IT 기술의 발달로 이 정도 대처하는 게 다행이지?’라며 긍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간의 짜증과, 약간의 자조와, 약간의 위안과, 약간의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 이것이 코로나인가 싶다. 코로나는 이제 우리의 감정과 정신까지 스며들어버렸다.

전염병과 같은 사회적 재난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을 뒤흔드는 것을 너머,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그 피해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게 더 엄혹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소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언제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다. 또한 경제 활동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도 무거운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었다. 양극화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고통은 아래로만 쏠려갔다.

2021년 들어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집단면역을 달성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이다. 어쩌면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경제적 구조나 자연환경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 사태는 이제 시작일 뿐일지 모른다.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아래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

코로나 발생 이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던가. 우리가 평생을 살았던 그 시절이 벌써 마치 먼 이야기처럼 아련하게 느껴진다.

아이들은 마스크 없는 환경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신나게 뛰어놀았고, 연인들은 야외에 소풍을 나가서 오붓한 시간을 나누었다. 사람들은 힘겨운 삶일지라도, 저마다 꿈과 희망을 가진 채 나름의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었다. 너무나 당연히 주어진 것들이었기에, 그 평범한 일상들이 주는 소중함을 미처 알지 못했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아무 걱정 없이 야외로 바람을 쐬러 나갔었고, 가족이나 친구들, 직장동료들과 마주보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어 먹었다. 스포츠 관람, 동호회, 문화생활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 휴가 시즌이 다가오면 설렘 가득한 여행 계획만으로 그간의 노고를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로 공항은 북새통을 이루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 도전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젊음을, 살아 있음을 걸속시킬 수 있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을 되돌아보니 어쩌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들만의 행복과 만족을 위하여 지나치게 이기적

이었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누려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든다.

지나친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으며 경제라는 미명 하에, 인간들은 대규모 공장 건설과 농축산을 위하여 동물들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파괴했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오염물질들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훼손시켰다. 이로 인하여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은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서서히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으며 바이러스들이 동물로부터 인간으로 숙주를 옮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코로나 이후의 세상보다는 훨씬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닐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이제 마스크는 의복의 필수항목이 된 지 오래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마스크는 단지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일시적, 선택적으로 사용한 위생용품에 불과하였으며, 손소독제, 거리두기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마스크로 인해 집 바깥세상은 얼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가족을 제외한 친구, 직장동료들의 생김새가 잊혀져 갈 만큼 무서운 세상이 되어 버렸다. 숨이 가쁘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마스크를 써야만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실내는 내 집 말고는 거의 없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안 쓰면 따가운 시선에 눈치가 보여서 돌아다닐 수조차 없다.

TV를 켜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열어도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소식은 언제나 코로나 확진자 및 사망자 현황이다. 나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지, 내가 사는 지역의 확진 상황은 어떠한지 찾아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계획한 외출을 해도 될지 한 번쯤 생각해보아야 하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4인 이상 모임을 피해 친구들과의 약속을 정해야 한다. 사소하고,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었지만, 이러한 생활이 하나씩 제한되고, 장기화되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나아가 우울증, 무기력, 분노, 과잉반응, 보복소비 등의 감정들이 사회 전반으로 팽배해져 갔다.

교육현장은 매우 불안정해졌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코로나 확진자 가감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 사이에서 가파른 줄다리를 하는 탓에 항상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육과 학습에는 안정적인 분위기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불안정한 분위기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부모님들을 비롯한 교육현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 아직 비대면 교육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수준으로 인해 코로나 이전의 교육과 동일시 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교육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나 기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회사나 기업들은 이제

재택근무나 화상회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 동안 대면으로 진행되던 업무나 회의, 행사들은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다. 지원부서 또는 IT 부서에서는 재택근무를 위해 충분한 노트북을 확보하였으며, 회사 네트워크망을 재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업무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재택근무 환경과 많은 실험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연구직군, 대형장비를 사용하는 생산직군에게는 업무 효율성에 한계가 드러난다. 원료, 시약, 장비 등 수출입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한 물류지체가 발생하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초래되고, 코로나로 인한 변화예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업무 안정성을 해침으로서 생산성이나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제상황의 위축이다. 집콕과 외출 자제로 인하여 거리에 사람이 줄어들어 경기가 위축되고 식당, 술집 등은 코로나 이전에 비하여 매출에 상당한 감소가 발생하고 있다. 여행 경기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서,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된 업종은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나마 해외여행을 못하는 이유로 국내여행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져서 국내여행 경기는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관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다. 영화관 특유의 밀집성과 밀접성, 밀폐성 때문에 기피해야 할 장소 1호가 되어버렸고, 코로나로 인하여 좋은 작품들이 아예 만들어지고 있지 않아서 상영할 작품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업계나 문화예술 업계 또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가 없어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코로나로 인하여 상황이 좋아진 분야도 많이 생겼다. 나 홀로 또는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산업계나 게임 산업계, 온라인에 기반한 플랫폼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 예방의 3대 요소인 밀집성, 밀접성, 밀폐성을 피하면서 지적, 정서적 만족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 역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꼭 현장에 가지 않아도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기술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관객들에게 마치 현장에서 보는 듯 실감 나는 느낌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애초에 비대면으로 사업을 해온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음식 분야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하늘이 주신 기회가 되어 막대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뉴 노멀(New Normal)을 향한 발걸음

뉴 노멀(New Normal)이란 이전과 다른 사회·문화·경제적 표준을 지칭하는 말로서, 주로 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용어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었다. 이처럼 코로나는 인류의 삶 전체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온 대 사건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뉴 노멀에 대한 논의 및 기술의 발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즉, 뉴 노멀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일찍 맞이하게 된 미래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뉴 노멀은 크게 2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비대면 문화의 확산이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조치로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회적 접촉이 차단된 결과 소위 ‘언택트’ 혹은 ‘비대면’ 문화가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비대면 문화는, 사회 분야에서는 광범위한 비대면, 비접촉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비대면 마케팅, 비대면 서비스, 비대면 소비, 비대면 영업, 비대면 채용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존에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진행해온 대부분의 일들이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는 비대면 러닝(Untact Learning), 비대면 강의, 비대면 시험,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의 모습으로, 그리고 문화 영역에서는 비대면 관람, 비대면 영화관, 비대면 주거문화, 비대면 모임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온라인 소통의 확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관계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통을 확산시키고 강화시키게 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수많은 활동들은 ‘랜선 문화’라고 지칭되며 하나의 일상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인들끼리 파티를 할 때에도 ‘줌(Zoom) 문화’라고 하여 비대면으로 파티가 행해지는 것이 전혀 이

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으로 랜선 시대, 줌 세대라는 신종 현상을 만들어 내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개학, 온라인 강의, 랜선 야학 등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문화 영역에서는 온라인 공연, 온라인 놀이, 온라인 축하, 온라인 여행, 온라인 술자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더 좋은 곳을 향한 지혜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흔한 말 속에 담긴 진리를 새겨야 할 시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점차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타인과의 단절은 필연적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더욱 팽창시킬 것이다. 이는 굉장히 폭력적인 사회를 야기할 수도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증오범죄가 그러한 현상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인류공동체 모두가 더욱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한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차지할 자리에 인간의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지혜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 세상에서의 자율성과 단독성을 유지하면서도,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타자의 고통을 공동체의 책임하에 두기 위한 모든 정책적, 문화적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의 인류는 이겨낼 것이며, 이를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